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도교육과 포교 활성화 방안

김 응 철*

- I. 서언
-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종교적 변화
- III. 신도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모색
-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교 활성화 방안
- V. 결어

■ 한글요약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영향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비대면 접촉의 확산 등은 기존의 신행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직시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중의 하나는 각 사찰의 포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도교육을 통해서 신행생활의 동기부여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도교육은 인문 교육과 불교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담당자,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동참자의 확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불교계는 신도 교육이 많이 부족했다. 사찰들은 강사진 확보, 강의 시설 등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따라서 각 사찰에서는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포교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사찰은 법회와 설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포교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조직, 봉사와 후원, 그리고 문화 및 수행 관련 포교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교에 헌신할 수 있는 핵심신도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불교, 신도교육, 포교방법, 역량강화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

I. 서언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종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종교계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는 있으나 당시의 사회적 상황, 과학기술과 의학적 수준, 종교계의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변화를 단순하게 예측하거나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1347년 말부터 남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동부 유럽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흑사병(黑死病, plague)은 3~4년 동안에 유럽인구의 1/3 이상을 희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리고 15세기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 3차에 걸쳐 대유행을 하면서 1억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흑사병은 한 세기 이상에 걸쳐서 반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유럽 종교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그 영향으로 종교개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²⁾

다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은 감염병 확산에 적절하게 대응한 종교조직은 활성화되고, 그렇지 못한 종교, 혹은 미신적으로 접근한 종교들은 소멸하거나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중세의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성직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성직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질이 떨어지고, 공포에 휩싸인 민심을 악용하여 각종 미신적 행위나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래 가지 못하고 제도화된 세계 종교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세계적으로 대유행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5억명이 감염되고, 사망자는 최대 5,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은 스페인 언론이 자유롭게 심층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렇게 명명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무오년 독감으로 명명된 감염병으로 740만명이 감염되고 1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

스페인 독감은 대유행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종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보천교라는 민족종교가 사라지고 원불교와 같은 신흥종교가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스페인 독감 때문인지 아니면 일제 강점기의 민족종교 탄압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인류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벌써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언택트(untact)라는 표현이 유행하였는데 이

1) 윌리엄 맥닐, 허정 역(1998), 178-179; 박흥식(2007), 5-32.

2) 잉글랜드의 흑사병을 연구한 가스켓(F. A. Gasquet)은 1348년 7월부터 2년 동안 당시 잉글랜드의 성직자를 보유한 성직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F. A. Gasquet, *The Great Pestilence A. D. 1348 to 1349: now commonly known as the Black Death*, 1983, p.71; 박흥식(2007), 8-9. 당시 성직자의 희생이 일반인보다 많았던 이유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3) 류동석(2020), 2-3.

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출 및 모임참여 자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19(with corona19)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러한 표현에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상존하면서 함께 극복해가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보다는 이와 유사한 세계적인 감염병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RNA형 바이러스는 변종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팬데믹의 위험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본 고에서는 코로나 19 이후를 예측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불교 사찰의 신도교육과 포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종교적 변화

코로나19는 2019년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2020년도에 세계적인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나타났다.⁴⁾ 현재의 세계는 항공과 배 등으로 연결되면서 지구촌화 되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은 그 어느 때의 감염병보다 빠르게 전파되었다. 코로나19는 몇 개월 만에 전세계로 퍼졌고, 약 1년 만에 세계 각국이 동시적으로 3차 유행의 시기에 들어섰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의 상태에서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다. 중세 흑사병, 스페인 독감 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나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이 거의 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까지 빠르게 확산되던 세계화, 국제화 등에 제동이 걸리고 지역화 추세로 전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면접촉이 줄어들고, SNS를 통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고 있다.⁵⁾ 사회적으로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드론 기반의 운송체계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과학기술 및 의학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봇의 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노동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⁶⁾

4)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염병을 위험도 따라 전염병 경보 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을 의미한다. 전염병의 대량결로 인해 대량 살상 현상이 나타날 때 이를 '팬데믹'이라고 표현한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20세기 초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등이 팬데믹의 대표적인 사례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팬데믹 현상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원전 430년경 아테네에서 발생한 역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숨졌다고 기록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세계화, 디지털화, 개성화 등과 같은 우리사회의 세 가지 흐름이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 뉴노멀(new normal)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박명규(2020), 1-4.

6) 부산연구원에서는 정책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경제구조 변화와 언택형 유통 급증, 밀집형 활동 감소와 온라인형 문화 관광 수요 증가, 공유보다는 거리두기, 고립과 우울감 심화와 보건위생형 연대운동 확산, 생활방역의 일상화와 공공의료 기능 요구 증가 등을 예측하였다. 부

종교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박병기(2020)는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삶의 실상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어,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윤리를 정착시키지 못할 경우 제도종교들은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일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⁷⁾

카톨릭 관점에서 이미영(20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이탈자가 팬데믹 상황으로 더 급속히 늘어나면서 서구교회처럼 텅 비는 현실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활동력이 둔화하면 대사회적 참여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회의 위기감이 크지만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내부 결속력을 다지면서 더 계도화 될 우려도 커진다.”라고 하였다.⁸⁾

반면에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섯 가지 변화는 “첫째,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둘째, 실시간으로 다양한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 셋째, 상황에 맞게 교회 참여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서 교회 변화를 요구하며, 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다섯째, 여러 가지 환경과 개인적 옵션에 부합하는 사역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등이다.⁹⁾ 이러한 주장은 결국 종교기관, 성직자, 신도 등이 서로 소통하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종교 활동 변화에 대하여 예장 합동총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¹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종교 활동 참여가 줄어들고 개인의 신행활동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온택트 문화로 변화하는 현상이 급속히 일어나며, 종교는 가치를 선도하면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범람하는 온라인 콘텐츠 사이에서 영혼을 정화하는 핵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조사 결과를 해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저술들은 이미 다양하게 발간되고 있다.¹¹⁾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측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신건강의 문제로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레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 상실감 등 부정적 감정 및 고통을 느끼는 우울증적 현상을 말한다. 코로나 레드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일상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

산연구원(2020), 1-26.

7) 박병기(2020), 1~15.

8) 이미영(2020), 16~18.

9) <https://www.youtube.com/watch?v=CiisW3XDhK0&t=545s> 자료 참조.

10) 이 조사는 2020년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하였다. 기독교연합신문, 아이굿 뉴스, 2020년 12월 4일자 기사 참조.

11)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2020); 임승규, 장두석 외(2020); 김상중(2020), 등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1,000여건이 간행되었다. 종교와 관련된 논문은 약 20여 편이 국회도서관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독교적 관점이나 기독교적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될 때 나타나는 정신적 현상이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불교 명상 프로그램의 수요는 이미 커지고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지급과 직업군의 다양화 등 경제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비를 해결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노동집약적 직장이 소멸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새롭게 각광을 받는 직업군으로는 IT, 로봇, 환경 분야의 전문가, 상업형 크리에이트,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노인의료 서비스 전문가, 상담 분야 전문가 등이 언급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명상과 상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원격수업, 온라인 강좌, 재택학습 등의 현상이 일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기존의 교육체계에 큰 변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불교계에서도 불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방법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가족 중심적인 일상생활, 소모임 중심의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면적인 접촉은 감염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심의 생활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에서는 가정 포교사를 양성하고 친밀한 소규모 그룹이 사찰을 방문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배달문화의 확산,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달문화는 특히 날아다니는 드론 시대가 열리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서비스는 종교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도 대중적인 대규모 종교모임이 위축되고 대신 찾아가는 서비스 수요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종교계도 방문 서비스로 가능한 실행활동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불교계는 사찰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수행방법과 수행체계 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찰들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힐링(healing)과 웰니스(wellness) 관광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¹²⁾

III. 신도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모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교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12) 웰니스 관광은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의되고 있다. 웰니스 관광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삶의 활력을 재생시키고, 명상과 휴식을 통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개선시키고, 건강과 자연, 그리고 환경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면역력 개선과 질병 예방, 그리고 힐링을 통한 건강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태수, “코로나 이후의 힐링산업과 웰니스 관광의 변화와 과제,”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국회 세미나 전자자료, pp.59-77.

후원과 봉사를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신도의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신도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1. 기존 신도교육의 실태와 과제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들은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고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소비력도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³⁾ 때문에 지역의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상하 10년 정도의 연령층, 즉 50~60대가 평생교육, 문화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각 사찰에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불교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시설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신행활동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에는 종교시설에서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대학을 찾고 있다. 반면에 불교계의 사찰들은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도 기본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양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찰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찰 신도교육의 문제점은 다음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내용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단 포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도교육은 입교/신도등록 후 기본교육, 재교육과 전문교육, 지도자교육 등으로 단계화하고 있다.¹⁴⁾ 기본교육은 불교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교육은 사찰에서 정기적인 신행활동을 하는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정기법회, 신행생활 등을 주로 교육한다. 전문교육은 핵심신도 양성을 목적으로 종단인가 불교대학과 조계종 디지털대학, 불교상담대학, 대한불교교사대학 등에서 담당한다. 전문교육은 불교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교리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불교사, 불교문화 등의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다. 지도자교육은 신도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부동 품계 품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입문 및 기본교육은 주지스님이나 사중 스님들이 담당하고 사찰에서의 신행활동 방법을 주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신도교육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

13) 베이비 붐 세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연령대를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고,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6. 25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

14)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bbs>) 자료 참조, 조계종단에서는 신도교육과 품계를 연계시켜 시행하고 있다. 신도의 품계는 발심, 행도, 부동, 선혜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용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불교를 공부하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것들과 인문학 등의 영역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신도교육이 신행교육 위주로 진행될 때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사찰에서의 신도교육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각 지역의 사찰들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 불광산사의 경우 신도교육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세 가지 방향은 국제화 교육, 사회 교육, 그리고 신중(信衆) 교육 등이다. 불광산사는 1976년부터 영문불학원을 시작으로 일문불학원, 인도불학원, 아프리카불학원 등을 개설하여 세계 각국에서 흥법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였다. 즉 각 언어권에 불학원을 설립하고 중국인과 현지인을 함께 교육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 불학원 입학생을 모집하고, 각국의 불광사분원을 방문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대만 불광산사의 사회교육은 1991년 미국 서래대학,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천대학, 1996년 대만의 남화대학, 2000년 대만의 불광대학 등을 설립하고 대학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광산사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개인과 가정에서 사회로, 사찰의 출가자에서 대중 생활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불교화 교육으로 전개하고 있다. 신중(信衆) 교육은 신도교육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곳으로 불광인문예술학원, 승만서원, 유마서원, 사구대학(社區大學) 등이 있다. 승만서원은 여성불자 교육기관, 유마서원은 남성불자 교육기관이며, 사구대학은 대만 각 지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각종 캠프, 인문예술과정, 생활미학과정, 불화강습,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¹⁵⁾

대만 불광산사의 신도교육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사찰들의 신도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도교육을 받은 재가불자들 중에는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가불자 교육은 출가 인재를 배출하는 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둘째, 사찰의 신도교육은 그것을 담당하는 강사진과 교육기관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불교의 각 사찰들을 운영하는 주지스님이나 사중 스님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계종단 스님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전통강원, 기초선원 등에서 수행과 습의를 익히고 있다.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그리고 몇 개의 대학원대학교 등의 현대적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는 스님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신도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육교역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해서 누구나 신도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교육교역자가 있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신도들의 욕구와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교육교역자들에게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하는 기관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도교육에서 재가불자가 참여기회는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대학 교수진과 일반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진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아서 전국의 각 사찰에서 필요한 때에 초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공 영역이 불교학 중심으로 한정되어

15) 양정연(2021), 11-28.

있기 때문에 응용불교, 실천불교 영역에서 조력해줄 수 있는 재가불자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들은 갈 곳이 없고, 신도교육에 필요한 강사진을 초청해야 하는 사찰에서는 전문가들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신도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강사진을 육성하고 활용한다면 불교학 및 관련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신도교육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 된다.

전국의 사찰 중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신도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경우 약 130여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은 약 15개 사찰 정도에 불과하다. 이 밖에 한국불교태고종과 대한불교진각종에서도 신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조계종단에서는 신도 전문교육기관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시설, 강사진, 교과목 등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천태종의 경우도 금강불교대학의 강사진과 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태고종과 진각종의 경우도 일부 사찰이나 심인당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소종단 소속 사찰에서는 신도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도심 지역에서 신도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전법교화 훈련이 될 수 있는 신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심포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¹⁶⁾

셋째, 신도교육의 내용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조계종단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입문, 불교교리, 불교문화 등과 관련된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각 사찰에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저술은 신도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고, 별도의 요약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강사용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한 적이 있으나 신도교육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사진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배치되는 내용을 신도교육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면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라고 하면서 니까야 등 초기불교 경전만 불설이라고 강조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신심이 견고한 불자들조차도 혼동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대승불교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이끌어 주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 고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신도교육을 위한 교재개발과 교수진 육성은 종단 차원을 넘어서서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국의 각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문 교수진들이 분야별로 참여하는 단체를 결성하여 해결하는

16)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서 최근에 성장한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활동에 효과적인 신도교육과 훈련방법을 개발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978년 설립된 사랑의 교회는 새가족 등록부서부터 제자훈련을 통해 수료한 훈련생들의 모임인 순장모임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회에서의 양육과정은 공동체 예배를 근간으로 하여 새신도 양육단계인 중보기도학교, 성경대학, 교리대학, 큐티세미나, 성경파노라마 등의 교육과정이 있고, 제자훈련 수료자, 청년 및 대학부 리더, 주일학교 교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폭발훈련, 봉사자를 위한 수화학교, 단기선교학교, 교사훈련원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공동체 사역 훈련과 봉사 및 선교사역 등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는 복지재단, 경조 및 상담, 호스피스, 주일학교 교육, 젊은이 선교, 사랑의 전도단, 세계선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서 리더십을 갖춘 그룹으로 육성하는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성과로 사랑의 교회는 90여명의 목사와 15,000여명의 집사와 권사, 전도사, 직원들이 활동하고 10만여명이 넘는 신도가 운집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www.sarang.org) 자료 참조.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때 교육교역자 육성과 교재개발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러한 인력과 교재를 각 사찰에서 선택하여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2. 신도교육의 새로운 모색

1) 다차원적인 신도교육의 목표 설정

신도교육은 불교의 사부대중, 그리고 사찰과 종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종교적 욕구와 불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에서 신도교육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광덕스님이 창건한 불광사, 대행스님의 한마음선원, 지광스님의 능인선원, 우학스님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등이 있다. 광덕스님은 1979년 기초교리강좌를 시작으로 습의교육, 불광법등 임원교육, 바라밀교학강좌, 법사 후보자인 명교사 교육, 대중법사로 활동하는 포교사 및 전법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불광계단을 통해 수계 불자를 육성하고 동시에 법등 조직을 통해서 불광법회로 확대시켰다. 김재영은 불광법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불광법회는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절대적 자존성과 주체성을 현발하는 반야바라밀사상과 보현행원의 실천원리를 표방함으로써 새 불교, 순수 불교의 이념을 정립하고, 법등·호법발원금·대중교육제도·대중법사 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순수불교를 현실과 미래의 역사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과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¹⁷⁾

불광사의 신도교육은 입문교육이나 기본교육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평신도에서 대중법사로, 신심을 바탕으로 한 실천운동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신도교육을 시작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설립초기부터 교육불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때부터 영남불교대학 문화원 발족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문교실을 개설하고, 금강경 독송반, 참선수업,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대관음사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신해행증의 원리에 따라 부지런히 수행하는 신심 있는 불자, 배움을 자랑스러워하는 지적인 불자, 바른 배움을 나누는 봉사하는 불자, 행복을 포교하는 불자 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관음사의 불교대학 과정은 경전부교양과 전문교육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전부는 2년제 대학과정, 4년제 대학원 과정 그리고 10년제 삼장법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 포교사 배출을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¹⁸⁾

17) 김재영 편저(2020), 365.

18)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홈페이지(http://www.tvbuddha.kr/sub01/01_03.htm) 자료 참조.

2010년대 이후부터 앞서 언급한 주요 사찰의 신도교육은 다소 위축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신도교육 수요의 감소, 다른 경쟁사찰에서의 신도교육 활성화, 신도교육의 내용과 강사진 등의 문제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신도교육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교육내용이千篇일률적이고, 교육교역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교육동참자가 급감하는 실정에 직면했다. 이러한 현상은 신도교육의 목표를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신도교육은 사찰을 찾은 초심자 교육, 평신도교육을 통한 핵심신도 양성, 지역사회 전법교회 전문가 배출, 지역주민과 불특정 다수를 위한 평생교육 등과 같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수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교육은 전법교회의 인재 육성이라는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포교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불교계 내에서 포교성과를 거두는 사찰의 신도교육은 공통적으로 전법교회에 적극적인 인재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것은 이웃 종교계의 신도교육 사례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평신도 교역자 배출이라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독교계의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핵심신도를 교육시키는 것은 각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핵심신도 교육은 지역에서 소수의 역량 있는 신도를 발굴하고 포교사 혹은 전법사로 활동하도록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찰의 주지스님과 신도임원들의 노력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사찰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운영할 때 효과적인 신도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¹⁹⁾

2) 대중매체를 활용한 신도교육 방법 모색

향후 신도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포교 차원의 대중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신도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대중교육은 SNS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 역량을 갖춘 사찰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확대된다고 해도 시공간을 뛰어넘어 강의가 가능한 SNS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고도화, 인공지능 및 로봇, 빅데이터 활용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대면을 통한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육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방송, SNS 등을 활용하는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19)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핵심신도 훈련과정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순장훈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리더십을 갖춘 그룹으로 육성하는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약 70여개로 연령별, 직능별, 선교활동별 등 다양한 부서가 설립되어 있다.

비대면 강의, 방송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대중교육은 불교계에서도 시급하게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교육방법이다. 비대면 교육은 사찰 중심의 신도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 다만 유튜브, 카카오톡의 라이브 방송, 네이버의 밴드 등과 같은 SNS 등을 각 사찰에서 신도교육의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신도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월정사, 해인사, 삼각산 화계사 등이 있으며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 전체로 확대시켰을 때 활성화된 유튜브 채널은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BTN, 요리 9단 보현스님 등이 구독자 수에서 비교적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성공적인 신도교육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도교육에서 유튜브와 같은 매체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교육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 때문으로 보여진다. 교육 내용이 보편적이고, 교육 방법이 체계적이라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각 사찰에서의 신도교육은 대부분 중단에서 제시한 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찰마다 강사진이 다르다 해도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은 신도교육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보법회를 비롯해서 일부 불교단체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등록된 회원에게만 공유하고 있다. 유료 강좌 때문에 폐쇄적인 교육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대해 강의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활용할 경우 구독자가 일정수를 넘을 경우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 강좌라 해도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는 신도교육은 촬영, 편집, 업로드 및 계정 관리 등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각 사찰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신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사찰은 많지 않다. 각 사찰에서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신도교육의 방향 전환을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 재정 지원, 그리고 신도들의 관심과 참여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을 포교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불교계가 어린이 및 청소년, 청년 포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기에 젊은 층들이 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새로운 신도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신도교육이 없이 포교 및 전법교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출가자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은 교육받고 조직화된 신도들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사찰의 장점을 활용한 신도교육 내용의 설정

사찰의 신도교육이 전법교화에 앞장설 수 있는 핵심신도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 콘텐츠 중에는 사찰음식, 상담 및 봉사 교육,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체험, 박물관 탐방, 불교문화재 연구, 명상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교육 콘텐츠는 사찰음식이다. 사찰음식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사찰은 전국비구니 회관 법룡사의 선재스님 사찰음식 강좌를 필두로 하여 서울 진관사²⁰⁾, 수원 봉녕사, 남양주 봉선사, 대전 영선사, 대구 동화사, 장성 백양사와 천진암, 광주 증심사 등이 있다. 이들 사찰 중에는 사찰음식 강좌에 필요한 시설과 건물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매년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조리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사찰음식은 한류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중의 삶을 이롭게 하는 먹거리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사찰음식은 신도교육을 넘어서서 대중교육으로 확대해도 손색이 없는 콘텐츠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교육으로는 상담과 봉사 관련 교육도 관심을 둘 수 있는 분야이다. 봉사 교육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주축이 되어 각 사찰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각 사찰의 자원봉사 단체를 결성하고 불자들의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담교육은 2000년 설립된 불교상담개발원이 주축이 되어서 화성용주사, 김천 직지사, 광릉 봉선사, 영천 은혜사, 공주 마곡사, 동학사, 서울 봉은사, 진관사 등에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불교상담심리사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자격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불교명상지도자 품수식을 병행하면서 명상과 상담을 연계시키는 연구와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명상분야는 최근 들어 힐링명상 열풍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분야이다. 참선지도자협회는 2020년 사단법인을 결성하고 ‘선명상지도사’ 양성과 함께 민간공인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참선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2014년부터 2년마다 간화선 대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명상, 참선, 수행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다양한 교육과 실참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명상 관련 앱이 개발되면서 이 분야의 대중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구에서는 캄(Calm), 심플해빗(simple habit) 등과 같

20) 진관사는 2009년 산사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산사음식 강좌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10년 G20세계 종교지도자 초청 산사음식 시연회를 비롯하여 가든클럽(외국대사 부인),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덴마크 등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관련인사, 그리고 리처드 기어, 세계적인 건축가 피터 줄터, 에릭 리버트, 스티브 맥커리, 르네 레드제피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진관사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또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사찰음식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진관사에서 발간한 사찰음식 관련 논문집으로는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 1420년 이후와 근대, 그리고 현재』(2018), 『진관사 산사음식 (戊戌本)』(2018), 『두부의 역사문화와 진관사 두부』(2019), 『진관사 공양음식 문화』(2020) 등이 발간되었다.

은 영어 명상 앱이 1,30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퍼즈, 마보 등의 명상 앱이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현재까지 대중화된 명상 앱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참선이나 수행은 스님들을 비롯한 전문 수행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를 대중화 하는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간화선 대중화 운동과 함께 생활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불교문화 영역은 대중교육 형태로 확산시키기에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등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며, 무형문화재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단 산하에는 2007년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총 28개의 사찰에서 성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성보박물관을 활용하면 박물관대학을 개설하고, 전문자원봉사자인 도슨트(docent)를 양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유형문화재는 사찰 문화재 관람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재와 역사 교육, 시민교육, 힐링 체험 교육 등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수륙제, 영산제, 연등축제 등은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관광, 체험, 교육 등으로 연계시킨다면 많은 동참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각 사찰들은 장소와 위치, 시설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심포교 사찰들은 핵심 신도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으나 산중 사찰들은 SNS를 기반으로 전국과 해외의 많은 사람들도 동참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의 자재공덕회와 불광산사에서 시행하는 방송 교육 프로그램들을 참고하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사찰들은 자재TV를 비롯한 방송국을 설립하여 위성방송과 SNS를 통해 전세계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찰들도 독자적인 활동 보다는 btn과 BBS,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과 불교 언론매체와 연계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다양한 대중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교 활성화 방안

1. 종교계의 대응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계는 크게 세 가지 방향 중의 하나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 가지 방향은 쇠퇴의 길을 가는 종교, 현상유지를 하는 종교, 그리고 발전의 길로 가는 종교 등이다. 쇠퇴의 길로 가는 종교 단체는 감염병의 팬데믹 현상이 가져오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교세가 위축되고 결국은 소멸될 것이다. 현상 유지를 하는 종교단체는 생존전략으로 안정된 길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발전의 길로 가는 종교단체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질적 변화와 더불어 양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종교 환경과 종교인들의 활동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종교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고와 행동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붓다 재세시에도 현재와 같은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바이샬리²¹⁾에 가뭄과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죽어갔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악귀와 같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 역병과 인포데믹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때 리차비족들은 마가다국 빔비사라 왕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 석존(釋尊)을 초청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했다.²²⁾ 이에 석존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설법을 통해 역병의 본질을 일깨워 줌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지혜롭게 방역(防疫)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로 인해 살아남은 바이샬리의 주민들은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의 교세는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

당시 석존은 혼란을 겪는 바이샬리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역병의 본질과 특성을 일깨워 주고, 적극적으로 방역과 치료에 나서도록 촉진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는 의학적 대처와 종교계의 대응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현재의 상황도 세계적 확산 추세에 있는 전염병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면서 백신이 개발되고 사회적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대응이다.

2021년 초인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방역에 도움을 주는 종교단체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종교단체, 그리고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종교단체들이 있다.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도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신천지를 비롯한 일부 기독교 교회와 성직자들의 몰지각한 대응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교계는 산문을 폐쇄하고, 모든 법회와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로 인해 사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도심포교당 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 사찰의 운영은 매우 어려워지고 불자들의 신행활동이 멈추는 부작용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불교 종단과 사찰들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출가자 감소, 포교활동 위축 등의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의 각 종단과 산하의 사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포교전략을 수립하고 종단과 사찰, 단체, 불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종단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포교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사찰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미시적인 포교방법을 개발하여 돌과구를 찾고, 불자들은 바라밀행을 실천함으로써 변화의 역군으로서 활동이 요구된다. 불교계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다양한 정보기술과 각종 매체들을 활용하여 현 사회에 효과적인

21) 바이샬리(Vaishali, Vesali)는 밧지족, 리차비족, 즈나트리카족, 비데하족 등 등 8개 부족의 연맹체의 수도였으며, 이 중에서 밧지족과 리차비족의 세력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밧지국으로 불렸다.

22) 전재성 역주(2015), 《숫타니파타》 <보배의 경>, 525~526. 각주 참조.

인 포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교 전략

1) 거시적 포교전략의 수립

포교는 종단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시적 포교전략과 지역사회의 교구와 단위사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시적 포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단 차원의 거시적 포교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불교 종단들은 단위 사찰, 신행단체, 승가와 재가불자 등 각각의 포교주체들이 각자의 포교역량을 갖추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포교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각 사찰들이 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불교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출가자 감소와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포교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각 사찰과 단체, 기관, 직능별로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는 출가자 확보와 재가불교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어렵다.

포교역량은 단기간에 갖추어지기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이들이 다양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단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의 포교활동은 양적 성장 보다는 불자와 일반인들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전법교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법교화의 의미와 실천원리는 《초전법륜경》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²³⁾ 이 경에서는 양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팔정도를 실천하고 사성제의 지혜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불교, 사찰, 스님 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최근 언론 매체에 불교계 인사들이 노출될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관사를 비롯하여 템플스테이 사찰, 전통 사찰 등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사찰은 전통적 배경과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²⁴⁾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출가자는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재가불자는 자리아타의 바라밀행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사찰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전법교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사찰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사찰에서의 상

23) 전재성 역주(2014), 《상윳따니까야》(S56:11), 2,676-2,678.

24) 한국관광공사에서 2020년 8월에 제작하여 배포한 유튜브 동영상 'Imagine your Korea'에서 노출된 사찰들에 대해서 국내외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동영상들은 게시된 지 3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약 3,0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위해 생활명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사찰이 정신적 안식처이며 영원한 고향이 되어주고, 스님들은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고, 불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 되어준다면 불교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포교 역량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각 사찰들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중적 포교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은 각종 SNS(Social Service Network)를 비롯한 정보매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음성, 사진,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동시적으로 무한정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매체가 유튜브(Youtube)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를 비롯해서 각종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포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SNS 매체들이다. 현대는 잘 만든 동영상 하나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 사찰에서 사회관계망과 정보매체를 활용한 포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신도들의 고령화되어 SNS 매체 활용이 부진하고 정보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 불자들이 많지 않아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찰들이 지역사회의 각급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 인재를 발굴해 내어야 한다. 포교콘텐츠 개발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지하고, 상금을 주는 공모와 시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을 활용하여 경전의 내용을 표현하고 사찰과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젊은이들을 사찰로 이끌어 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명상 붐에 대응하여 불교의 수행방법을 대중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다. 종단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시급한 일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명상 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불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현재는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상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대응방법이다.

현재 명상 앱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하는 프로그램이 잘 알려져 있다. 명상은 미국 성인의 약 14.2%가 앱을 통해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운로드 수 7천만회, 약 200만 명의 유료가입자가 참여하고 있는 캄(Calm)은 수면, 휴식, 집중 등의 테마에 따른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관리, 수면, 집중, 불안 다스리기, 감사, 행복, 바디스캔, 일상 명상 등 세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²⁵⁾

각급 단체에서 명상관련 실참실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여 역할을 부여하면 이

25) 삼성전자에서는 2019년부터 수명, 명상, 휴식 앱 부분에서 선두주자인 캄(Calm)과 제휴하여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명상 앱 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하여 2012년 마이클 액튼 스미스(Michael Acton Smith)와 알렉스 튜(Alex Tew)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앱은 마음챙김(Mindfulness)을 기반으로 하여 명상을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들이 사찰을 배경으로 명상을 지도하고 이를 SNS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다. 이것을 종단 차원이나 주요 교구본사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면 상업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실참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후원기관 등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²⁶⁾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에는 약 181개의 각종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조계종단 산하의 교구본사별로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복지시설 운영의 성패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봉사단체 및 후원단체의 결성에 달려있다. 불교계에서는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하여 종단별로 몇 개의 후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예산은 100억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향후 불교계의 과제는 복지시설과 봉사단체, 그리고 후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미시적 포교방법의 활성화

미시적 포교방법은 각 사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면서 신행활동에 동참하도록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미시적 포교방법은 주로 교육 받고 조직화된 신도 임원이나 전문 포교사들이 각 사찰과 함께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시적 포교방법은 각 사찰의 포교 역량과 환경, 자원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격을 갖춘 사찰, 전통 사찰로서 각종 문화재를 보유하는 사찰,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 등은 어떤 경우라 해도 포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주지스님이나 신도들의 포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경우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실천되기 어렵다.

현재 산중이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불자들의 발걸음조차 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찰을 찾거나 대웅전 등 각종 전각에 들어와 참배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사찰들도 기도, 법회, 재의식 등이 취소되거나 SNS로 중계되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재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들도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들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시적 포교방법은 단위 사찰의 특성, 즉 공찰과 사설사암, 전통사찰과 신흥 도심포교당 등에 따라서 환경과 특성, 포교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단위 사찰 차원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신심과 원력을 갖고 사찰을 외호하고 포교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불자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신도 교육 및 지도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⁷⁾

26) 이웃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모금단체의 2019년도 모금액은 굿네이버스 약 1,967억원, 월드비전 약 2,531억원, 초록우산 2,116억원 등으로 각 기관의 인터넷 공식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27) 신도 10만 명이 넘는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사랑의 교회'는 새가족 모임을 시작으로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순장훈련 등을 통해 지도자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훈련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순

사찰에서의 평신도 교육은 “스스로 법륜을 굴리고 전법교화에 앞장설 수 있는 핵심신도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평신도 교육은 일정기간의 교육에 이어서 오계 수지, 범명 부여, 범등장·범륜장·범회장 등의 직무 부여, 지역에서의 포교활동 실천 등의 과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찰에서의 포교활동은 단순한 신도의 양적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법교화의 자질을 갖추도록 촉진하는 것이며, 초심자를 도와서 올바른 수행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불자들이 많아지면 사찰의 포교활동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다.

단위 사찰에서의 전법교화 활동은 주지스님이나 종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포교에 앞장설 때 스님들의 전법교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평신도들의 발굴, 사찰 소임자들의 지원활동 확대 등의 요소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전통적인 예불, 습의, 의식, 의례 등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특성과 종교적 욕구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찰에서는 새벽예불, 사시예불, 저녁예불 등의 예불의식, 49재와 천도재, 영산재와 수록재 등과 같은 재의식, 그리고 절기별 법회, 음력으로 이루어지는 재일법회 등 다양한 불교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불과 의식 등은 우리 사회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의식을 봉행할 때 사용하는 의식문의 한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식 때 독송하는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에 대해서도 한문이 아닌 한글로 독송하는 방향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의식이나 의례는 교리가 아니라 문화로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오랜 시간 습의로 굳어졌고, 이를 선호하는 의식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의례를 간소화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전법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종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해본 후에 보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V. 결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장단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종교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불교계도 그 영향을 뿌리치기 어렵다.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비대면 접촉의 확산 등은 기존의 수행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방법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장은 평신도 사역자를 상징하는 호칭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육성한 순장은 약 3,0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순장은 순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평신도들이다.

발전하는 종교단체들이 등장하게 되고, 쇠퇴하는 종교단체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가 쇠퇴가 아니라 번영으로, 위축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평신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신심과 원력을 갖춘 핵심신도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이 어떻게 전법교화, 포교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신도교육은 불교교리 위주에서 경전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교육교역자의 양성과 발굴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지역사회에서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포교방법을 개발한다 해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불교는 각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형, 무형 문화재를 활용하여 불교적 정서를 확산시키는 간접적 포교방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빠르게 다종교화 되고, 종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핵심신도 교육과 전법에 앞장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찰이 이들을 접수하고 포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포교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전과 혁신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서히 현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이 점차 일상화되고, 이 과정에서 정보소비의 격차로 인해 소외받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인간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수재, 풍재 등 삼재팔난이 횡행하면서 오탁악세의 어려움이 더 크게 몰아칠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발생했던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각 종단과 사찰들, 그리고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불교의 미래는 먼저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 그리고 재가불자들의 지혜로운 안목과 실천의지에서 찾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중, 『포스트 코로나』, 베스트하우스, 2020.
- 김재영 편저,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불광출판부, 2000.
- 류동석, “팬데믹의 역사 및 시사점”, 전자자료, IBK경제연구소, 2020.
- 박명규, “코로나19의 충격과 한국사회 변화”, 한반도평화연구원, Issue Brief, 제2호, 2020, 06, pp.1-4.
- 박병기,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묻다.-불교 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제2회 다문화사회와 다종교교육 포럼 자료집, 2020, pp.1-15.
- 박홍식, “흑사병과 중세 말기 유럽의 인구문제”, 韓國西洋史學會 『西洋史論』 제93호 (2007년 6월), pp.5-32.
- 부산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변화와 시정 대응방안”, BDI 토요정책 토론회, 2020, 03, pp.1-26.
- 양정연, “대만불교의 교육체계와 인재육성 제도”, 불광 창립 37주년 기념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 『대만불교의 조직체계와 리더십』, 2011, pp.11-28.
- 윌리엄 맥닐,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998.
- 임승규, 장두석 외, 『포스트 코로나』, 한빛비즈, 2020.
- 장태수, “코로나 이후의 힐링산업과 웰니스 관광의 변화와 과제,”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국회 세미나 전자자료, pp.59-77.
- 전재성 역주, 《상웃파니까야》(S56:11), 한국 빠알리 성전협회, 2014.
- _____, 《숫타니파타》<보배의 경>,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5.
- 진관사, 『진관사 공양음식 문화』, 2020.
- _____, 『두부의 역사문화와 진관사 두부』, 2019.
- _____,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 1420년 이후와 근대, 그리고 현재』, 2018.
- _____, 『진관사 산사음식 (戊戌本)』, 2018.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0.
- Gasquet, F. A. *The Great Pestilence A. D. 1348 to 1349: now commonly known as the Black Death*, 1983.

■ 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Buddhist Education and Mission in the Post-Corona Era

Kim Eung-chul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ligious communities in many forms. And neither can Buddhism escape its influence. It is too early to prejudge the consequences because the effects are ongoing.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rolonged social distancing and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ontact will lead to the contraction of existing new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ace these phenomena and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most important response is to strengthen the mission capabilities of each temp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ways to motivate religious life and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the education of believers.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local residents to visit temples comfortably.

It is desirable to promote lay education so that humanities education and Buddhism education can be conducted at the same time. To do so, problems such a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securing participants, etc. shall be resolved. Korean Buddhism lacked a lot of religious education. The temples also had many challenges to solve in securing instructors and teaching facilities. Therefore, each temple should have an educational infrastructure first and foremost.

In terms of the method of propagation, each temple should renew its traditional method of propagation, focusing on gathering and preach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methods of propagation related to education, organization, service and sponsorship, and culture and performance. And above all, temples should strive to discover key believers who can devote themselves to missionary work.

Keywords ● Covid19, Buddhism, Lay education, the method of propagation, Empowerment